

# -(으)ㄹ 양이면

~할 생각이라면, 기왕 ~할 거라면

의도를 전제로 세우고 그 의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합니다. 오래된 형태이며, 맞춤법 때문에 자주 틀리는 표현입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어간 종류      | 형태        | 예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모음으로 끝남    | -ㄹ 양이면    | 하다 → 할 양이면   |
| 자음으로 끝남    | -을 양이면    | 먹다 → 먹을 양이면  |
| ㄹ로 끝남      | 추가 없음     | 만들다 → 만들 양이면 |
| 맞춤법        | 양(량 아님)   | 두음 법칙        |
| 자주 함께 쓰는 말 | 이왕, 기왕    | 기왕 할 양이면     |
| 유의어        | -(으)ㄹ 바에야 | 할 바에야        |

## 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탈락형을 포함한 표준 규칙을 따릅니다: 만들다 → 만들 양이면.

맞춤법에 관하여: 이 말은 흔히 양이먼로 적히지만, 표준 맞춤법은 양이먼을 요구합니다. 띄어 쓴 뒤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소리 ㄹ이 ㅇ이 됩니다. 양심, 요리와 같습니다.

앞 절에는 의도를 말하고, 뒤 절에는 그 의도가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: 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

다음 표현과 쓰임이 많이 겹칩니다: -(으)ㄹ 바에야 둘 다 이왕이나 기왕과 함께 씁니다. 양이먼이 더 예스러운 표현이며, 옛 글 밖에서는 드뭅니다.

## ■ 예문

- 1 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
- 2 떠날 양이면 미리 알려 주게.
- 3 이 길을 갈 양이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.
- 4 부탁할 양이면 사정이라도 설명해야지.
- 5 직접 만들 양이면 재료부터 골라야 한다.
- 6 끝까지 갈 양이면 지금 결정하시오.

## ■ 비교

### -(으)ㄹ 바에야

뜻이 매우 가깝습니다. 바에야는 이미 받아들인 상황에서 출발하고, 양이먼은 의도에서 출발합니다. 둘 다 이왕, 기왕과 함께 쓰며, 오늘날에는 바에야가 훨씬 흔합니다.

기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. / 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

### -(으)려면

현대적인 대응 표현입니다. -(으)려면이 일상 한국어로 똑같은 뜻을 나타냅니다.

하려면 제대로 하세요. (구어) /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 (옛 글)

### -(으)ㄴ/는 양

같은 명사 양이지만 전혀 다른 구문입니다. 그 구문은 ‘~인 척’을 나타내고, 이 구문은 조건을 세웁니다.

아는 양했다. (아는 척했다) / 할 양이면 (할 생각이라면)

## ■ 주의

✗ 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

○ 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.

표준 맞춤법에서는 여기서 양으로 적습니다. 띄어 쓴 뒤 첫소리 ㄹ은 양심, 요리처럼 ㅇ이 됩니다.

✗ 직접 만들들 양이면 재료부터 골라야 한다.

○ 직접 만들 양이면 재료부터 골라야 한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
✗ 야, 갈 양이면 지금 가.

○ 야, 갈 거면 지금 가.

양이먼은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-(으)려면이나 -(으)ㄹ 거면 씁니다.